

우리에게 만주란?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문학과지성사, 서평

류석춘(연세대 교수·사회학)

I. 『만주 모던』 검토

1) 한정석의 참고문헌과 ‘식민지 근대화’ 문제

이 책은 ‘하드코어’ 사회과학에 ‘삽화’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접합해 ‘1960년대 대한민국’이 ‘1930년대 만주국’의 복사판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독자들이 읽기에 부담되지 않는 터치로 그러나 집요하게 두 국가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같은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도입 즉 책의 제1장 “만주 모던으로의 길”은 매우 현학적이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자신의 입론을 위해 근대를 가로로 즉 공간적으로 그리고 또 세로로 즉 시간적으로 오가며 ‘식민주의’와 ‘모던’이 맺는 관계를 장황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설명한다. 특히 일반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물론 그 이론적 주장의 핵심은 “식민지를 겪으며 근대가 모방되고 확산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 이 이론은 우리에게 이미 낯설지 않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국내외의 학자들이 이 주장에 필요한 증거를 모아 수많은 문헌을 생산해 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알려진 연구 성과는 전문적인 학술논문이나 학술서적의 형식에서는 물론 대중적인 교양서적으로도 엄청나게 보급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영훈 교수 그리고 그가 이끄는 낙성대연구소는 이미 이 분야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예컨대 이영훈의 『대한민국 이야기』(기파랑)는 2007년 처음 출판되어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¹⁾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 학술서적들도 그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왔다.

- 호리 가즈오, 2003, 『한국 근대의 공업화』, 전통과현대.
- 마이클 로빈슨·신기욱 엮음, 2006,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1) 이 책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최근 이 책을 패러디한 책 『슬픈 대한민국 이야기』(김재진, 렛츠북, 2016)가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김재진의 책은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젊은 세대가 이영훈의 책에 노출되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

- 카터 에커트, 2008, 『제국의 후예』, 푸른역사.

다음의 논문들도 마찬가지로.

- 류석춘, 1999,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의 전개”, 『전통과현대』 겨울호(10호).²⁾
- 윤희동, 2009, “‘숨은 신’을 비판할 수 있는가 - 김용섭의 ‘내재적 발전론’”,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영문으로 된 문헌도 많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한국,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네 나라의 식민지 경험이 근대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한 다음의 책이다. 이 책은 『만주모던』과 정확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을 설명하는 Part 1 의 세 챕터 제목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Atul Kohli, 2004, *State-Directed Development: Political Power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Global Periphe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장: The Colonial Origins of a Modern Political Economy: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s Cohesive-Capitalist State

2장: The Rhee Interregnum: Saving South Korea for Cohesive Capitalism

3장: A Cohesive-Capitalist State Reimposed: Park Chung Hee and Rapid Industrialization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뒷받침 하고 있는 위의 문헌들이 『만주모던』에 등장하지 않는 사실은 매우 기이하다. 특히 이 문제는 2016년 출판한 『만주모던』의 저본이 1999년 출판한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동아대 출판부, 2009년 개정판)인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저본을 출판하고 지금의 책이 출판되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앞에서 열거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불리는 연구 성과가 집중적으로 등장하여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저자가 식민지근대화론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현실정치에서 ‘강성 우파’,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극우’라는 딱지까지도 붙이는 이른바 ‘뉴라이트’에 대한 저자의 치밀한 거리두기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³⁾

그러나 이 해석도 다음과 같은 책의 내용으로 인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자는 4

2) 이 논문은 류석춘, 2002,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제2장에 재수록되어 있다.

3) 최근 벌어진 건국절 논란, 즉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을 정부가 수립된 1948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된 1919년으로 보아야 하는 지를 두고 일부 좌파 역사학계 원로들은 건국절 제정 노력이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라고 비판했다(경향신문 2016, 8, 22).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건국은 ‘항일’과 ‘반공’ 두 가지 힘의 결합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류석춘, 2016 조선일보 2016, 9,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21657001&code=940100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07/2016090700564.html

장 “싸우면서 건설하자: 한국판 국방국가”의 첫머리에서 “파시즘과 근대국가”를 설명하면서 “파시즘은 근대의 추동력이었다”(233쪽)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주장은 “권위주의는 근대화의 추동력이었다”(235쪽)로 연결된다. 이 파격적 주장은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가 진척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보다 한층 더 획기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 『만주모던』에 등장하는 ‘페미니즘’ 문제

저자는 제1장 “만주 모던으로의 길”에서 스스로 3장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사 초유의 남성적 국가의 등장,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계보에서 만주국이 차지하는 위치, 만주국을 소환한 배경인 냉전과 한일수교 등을 짚어보고 1960년대 ‘재건’에 침윤된 만주국의 ‘건국’ 에토스 등을 통해 한국 발전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젠더 관점에서 논의한다”(73쪽). 이어서 3장 “건국과 재건”의 텍스트는 “만주와 남성성”(176-188쪽) 및 “국가와 폭력”(189-202쪽)과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6장 ‘신체의 각성’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젠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만주가 과연 “한국사 초유의 남성적 국가”였다는 주장은 과연 얼마나 사실인가? 설마 유교를 국교로 한 조선 그리고 나아가서 고려는 물론이고 그 이전 국가들은 남성적 국가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자는 해석한다. 그렇다고 명치유신 전 혹은 후 일본이 남성적 국가가 아니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평자는 해석한다. 그렇다면 ‘한국사 초유의 남성적 국가’는 저자가 말하는 근대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근대 국가의 등장을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그 말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체제, 그리고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와 같은 절대주의 국가의 특성이 명치유신을 거친 일본과 만주국에서 반복되었고, 마침내 한국에서 박정희 체제로 구현되었다는 주장일 것이다. 그렇다면 평자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하는데 페미니즘을 동원하고 또 페미니즘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젠더 시각은 군더더기일 뿐이다. 앞에서 지적한 ‘파시즘’ 혹은 ‘권위주의’ 담론만으로 논지를 전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3)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

『만주모던』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주제로 책을 쓰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더 있다. 다름 아닌 북한 문제다.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박정희 대한민국과 만주국의 관계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가 바로 김일성 북한체제와 만주국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미 선행연구도 등장했다. 다음의 글들이다.

- 박명림, 2008, “박정희와 김일성-한국적 근대화의 두 가지 길” 『역사비평』 봄호(통권 82호)
- 김용삼, 2016, 『김일성 신화의 진실』, 북앤피플, 제6장: “박정희와 김일성을 배출한 만주”

이 두 글은 모두 앞에서 지적한 ‘파시즘’ 혹은 ‘권위주의’가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남과 북을 통해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두 글 모두 만주의 유산이 남과 북에 크나 큰 영향을 미쳤지만, 남은 결국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반면 북은 이를 최악으로 활용했다고 결론짓는다.

만주국이라는 동일한 유산을 각자 “비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든” 남북한의 대결은 결국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다. 이승만이 1941년 책에서 주장했듯, 북한은 만주국을 넘어 일본의 천황제를 모방한 전체주의 국가, 즉 수령체제의 국가이기 때문이다(이승만, 2015,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비봉출판사).⁴⁾ 『만주모던』이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4) 기타 부분적인 문제들

- “대일청구권자금” 문제를 굴욕외교로 접근한 내용은 객관적이지 못하다(216-217쪽). 일본이 만든 만주국이 대한민국의 원형이라고 주장한 책이라면, 한일 간 국교 정상화 당시 두 나라 간에 쟁점이 된 문제를 서로 교차시키며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책은 한국이 주장한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당시 일본은 식민통치를 하며 한국에 투자한 것들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나 공기업(동척 등)의 재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민간인이 한국에 남기고 간 소위 ‘적산’은 국교를 정상화하며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한 사실을 이 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모방’의 문제 즉 “근대의 다른 특질은 모방이다”(37쪽), “비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62쪽), “꼭 같지는 않으나 비슷한”(155-156쪽) 등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모방에 의한 따라잡기 문제다. 이 문제에 관해 평자는 유교 문화가 따라잡기에 매우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석한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선진문물을 당연히 따라잡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류석춘/유광호, 2015, “유교와 민족주의-아산의 기업관과 자본주의정신”, 『아산, 그 새로운 울림: 미래를 위한 성찰, 살림과 일』(푸른숲).

<http://sclew.yonsei.ac.kr/thesis/t245/t245.pdf>

- 모방의 문제와 연관되지만 본격적 분석 없이 스치며 언급된 “유교담론”에 관한 문제다. 그는 “유교 이념을 국교로 밀어붙인 곳도 만주국이다”(172쪽)라고 말한다. 또한 “유교는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보였다”(298-299쪽)고도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유교를 분석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 사실 유교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평자도 이 문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Lew, Seok-Choon, 2013,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al Path: Confucian Tradition, Affective Network*, NY: Palgrave

- 또한 텍스트에서 스쳐간 “금오공고”(156쪽)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류석춘/김형아, 2011, “1970년대 기능공 양성과 아산 정주영”, 아산사회복지재단 편, 『아산 정주영과 한국경제 발전 모델』, 집문당, pp.99-146.

4) 이 책은 1941년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된 이승만의 책 *Japan Inside Out* 을 번역한 책이다.

- 마지막으로 “이승만의 ‘일민주의’가 박정희의 ‘민족주의’로 연결”된다는 설명을 읽으며 (279-285쪽) 평자는 무릎을 쳤다. 앞으로 새로운 연구주제로 발전시킬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

5) 만주에 관한 원자료 문제와 만주 주민의 국적문제

‘필요한 배경지식’ 부분에서 설명했던 만주에 관한 두 원자료는 사실 이 책의 주장을 펴는데 가장 결정적인 자료다. 당시 갈등하던 중국과 일본의 만주에 관한 입장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정리한 국제연맹(LN: League of Nations)의 “Lytton Report” (1932)는 물론이고, 그 내용을 발췌하고 해설하여 한국독립의 필요성을 호소한 이승만의 *The Koreans in Manchuria*(1933)는 만주의 한인 문제를 당시 기준에서 최고 수준의 자료를 모아 분석한 원자료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만주모던』은 이 자료들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비록 이승만의 책은 연세대 도서관 귀중본 실에 숨어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고 치더라도, Lytton Report 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차고 넘친다.

- Lytton Report (League of Nations, 1932).
- Syngman Rhee, 1934, *Koreans in Manchuria*, Paris: Agence Korea.

크게 보아 중국 그리고 작게 보아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한인의 만주 이주에 관해 이승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료를 남겼다. 다른 아닌 *The Koreans in Manchuria* 라는 문건이다. 이 문건은 1932년 11월 10일 임시정부가 만 57세의 나이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을 1932년 11월 21일부터 개최되는 국제연맹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탄원할 전권대사로 임명하면서 만들어지게 된다.⁵⁾

당시 국제사회는 일본이 1931년 일으킨 만주사변 그리고 1932년 3월에 세운 ‘만주국’ 문제 때문에 중일 간에 갈등이 매우 첨예한 상황이었다. 중국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국제연맹은 Lytton을 책임자로 하는 조사단을 파견하여, 1932년 9월 일명 “Lytton 보고서”를 제출 받는다.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Appeal by the Chinese Government”였다.

이 보고서는 만주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예컨대 일본이 건설한 만주의 철도에 대한 기득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행동에 의한 만주국 건설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해 국제연맹은 1933년 2월 일본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만주의 주권은 중국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반발하며 결국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5) 이 문건을 출판한 1933년 당시 이승만은 국제연맹 회의가 개최되고 있던 제네바에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활동도 전개하였다. 1월 26일에는 2.8 독립 요구 서한을 국제연맹 회원국 대표들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2월 21일에는 제네바 드뤼시호텔 식당에서 프란체스카 도너(Francesca Donner)를 우연히 만났다. 또한 2월 22일에는 제네바의 프랑스어 신문 ‘라 트리뷴 도리앙지’에 독립운동 기사를 실었다. 국제연맹 회의 이후 돌아오는 길에 이승만은 7월 소련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해 보고자 모스크바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승만은 “Lytton 보고서” 가운데 만주의 한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을 발췌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35쪽 짜리 문건 *The Koreans in Manchuria*를 1933년 초 출판하여 제네바의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하며 한국의 독립이 필요함을 홍보하였다. 출판은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서영해가 설립한 파리의 출판사 Agence Korea에서 이루어졌다.

문건의 내용은 한인이 만주로 이주한 까닭, 만주로 진출한 일본을 만족시키기 위한 중국의 한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결국 한인들이 일본의 만주 진출에 소모품으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이 설명하고 있는 만주 한인 문제의 가장 대표적 사건이 바로 1931년 7월 일어난 ‘만보산 사건’이다. 이외에도 이 문건은 훈춘사건, 동경대학살 등 일본의 폭압적인 모습 역시 고발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의 한인 문제도 다루었다.

‘만보산 사건’으로 대표되는 만주의 한인 문제의 핵심은 일제의 술책으로 한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이 갈등은 다시 한반도 내부의 중국인에 대한 한인의 적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교묘한 분할지배 전략을 이승만은 이 문건에서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당시 만주에 간 한인들은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 간 한인이 일본에 저항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을 얻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영훈 교수는 “화중과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중국 공산당에 속한 조선인(한인)들의 공산당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계열의 독립운동은 북한의 성립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성립에는 적대적이었다”고 설명한다(자유경제원 2015년 발표문).

만약 『만주모던』의 저자가 이 원자료들을 참고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재만 조선인들의 국적 문제가 분석의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주모던』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조선인 2등 공민설’을 매우 적극적으로 부정한다. 즉 만주국에서는 일본인, 조선인, 만주인(중국인)순서로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정하며, 결국 일본인 대 나머지 주민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111-114쪽). 그리하여 저자는 “중국까지 조선인들은 만주국 국적을 갖지 못한 애매한 존재로 남았다”고 못을 박는다(114쪽).

그러나 저자가 참고하지 않은 앞의 두 자료는 “이중국적” 문제를 만주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한다. 사실 당시 만주국의 이중국적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다.

우선 고려해야 할 문제는 1910년 이전과 이후에 만주로 간 조선인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문제다. 한일합방 이전 중국은 만주로 온 조선인에게 중국 국적을 주었는가? 주었다면 어떤 조건에서 주었으며, 이중국적도 허용하였는가? 아니면 끝까지 중국 국적을 부정하였는가?

마찬가지 문제가 1910년 합방 이후에도 벌어지지만,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일본의 한국

지배를 ‘피해서’ 혹은 ‘이용해서’ 만주로 온 조선인 이주민을 당시 중국 정부는 일본인 국적으로 받아 들였는가? 아니면 중국 국적을 인정해 주었는가? 중국 국적을 주었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하였으며, 혹시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국적을 모두 주는 경우는 없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마침내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된 후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만주국은 만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등의 국적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리고 마침내 중국은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정부로 쪼개진다. 이 와중에서 만주에 간 한인들의 국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만주모던』은 만주국이 ‘5족협화’를 기치로 내걸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일본인 대 나머지 종족”이라는 이분법으로 문제를 정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1931년 7월의 “만보산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문제는 당시 건국한 만주국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II. 서평에 도움을 받은 배경 지식

1) 만주(간도 間島)와 조선: 간도 개척 역사

“간도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

동아일보 기사 (2004년 5월 14일, 투먼·엔지=특별취재팀)

http://lsy24034.blogspot.kr/2015/10/blog-post_985.html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던 간도 지역은 12세기 초부터 500 여 년 간 임자 없는 땅이었다. “당시 국경은 선(線) 개념이 아니라 지대(地帶) 개념이었습니다. 명대(明代:1368~1644)에 간도지역은 고려 및 조선과의 군사적 완충지대로 어느 쪽의 일방적인 통제력도 미치지 않는 중립지대였어요”(박선영 포항공대 교수). 청대(清代)에 들어 사정이 좀 달라진다. 청은 1660년대 백두산을 조상의 발상지로 성역화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했다. 병자호란 이후 청을 섬겨야 했던 조선 정부는 간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일단 봉금(封禁)조치에는 협조했다. 거기엔 조선 변경에 대한 청나라 사람들의 침탈을 단속할 명분을 얻기 위한 고려도 작용했다.

이후 200여 년간, 조선과 청은 봉금 합의를 엄격히 지켰지만 목숨을 걸고 범월(犯越)하는 조선인들을 막지는 못했다. “1867년 여름 새 무산부사(茂山府使)가 부임해 각종 세금과 벌금으로 쌀 10여 만석을 강제 징수했다. 이를 피해 마을사람들이 500여 리의 원시림을 뚫고 백두산 기슭으로 들어갔다. 여름에는 더워 죽고 겨울엔 얼어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여서 지금도 길가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1872년 압록강 상류 지안(集安) 린장(臨江) 등지의 조선 유민 생활상을 기록한 최종범(崔宗範)의 ‘강북일기(江北日記)’에 나오는 이야기다. 강을 건너

신천지를 찾은 조선 유민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원시림과 황무지, 그리고 그곳까지 뒤쫓아 온 일부 조선 관리들의 가렴주구였다. 그런데도 이주민은 늘어나기만 했다.

그나마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간도에서 피땀으로 마련한 농토는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의 3배나 되는 수확을 안겨 줬다. 처음에는 월강(越江)을 중죄로 다스리던 조선 관리들도 나중에는 이를 눈감아주거나 도와주기까지 했다. 결국 1880년대 청이 봉금을 풀었다. 팽창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청조의 발상지에 주민을 대거 이주시켜 개발한다는 이민실변(移民實邊) 정책을 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인들은 쫓겨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미 간도는 조선인들의 수중에 있었다. 1890년대 무산 종성 회령 온성 경원 대안(對岸)의 조선인은 지역인구의 93%(청측 통계) 또는 98%(조선측 통계)를 차지했다. 조선과 청이 간도문제로 충돌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하순까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두만강 압록강 대안지역에 벼농사를 처음 도입한 것은 조선 유민들이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를 ‘농업혁명’으로 높이 평가한다. “‘이밥(흰 쌀밥)은 빼밥’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족은 얼음이 서걱거리는 강물에 들어가 보를 막고 도랑을 냈다. 쌀을 수입하던 동베이지방은 1910년대 말부터 쌀을 수출하게 됐다”(‘중국조선족역사상식’ 중). 벼농사는 1870년대 통화(通和) 연지(延吉) 등에서 시작돼 압록 두만 하이란(海蘭) 무단(牧丹) 쑹화강 유역으로 퍼져 나갔다. 1차 세계대전 발발(1914년)에 따른 쌀값 급등이 벼농사 확산의 중대 전기가 됐다.

그와 함께 조선 유민들은 동북 3성(省) 전역의 강 유역과 평지로 거주지를 넓혀 갔다. 1933년에는 북위 50도의 헤이룽(黑龍)강 연안에서 벼 재배에 성공하는 ‘기적’을 이뤄 내기도 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1920년 현재 동북 3성 주요 지역 무논의 80~100%는 조선족이 개간한 것이었다. 1934년 동북 3성 총 인구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에 불과했지만 조선족의 벼 생산량은 전체 수확량의 90.1%에 달했다. 간도의 황무지가 비옥한 옥토로 바뀌는 과정은 곧 조선 유민들이 간도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우뚝 서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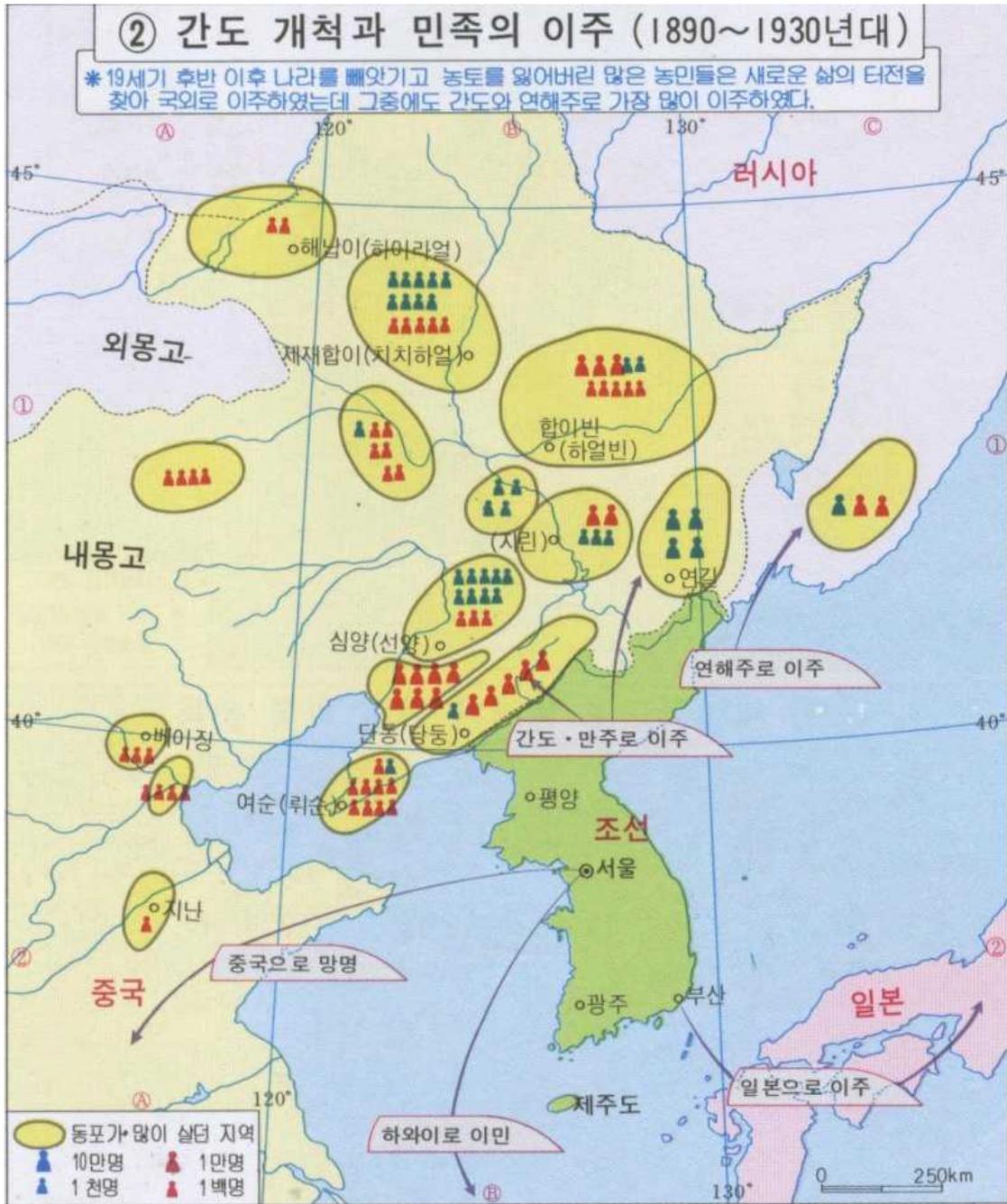
일제의 한반도 강점 이후 간도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항일독립운동의 주 무대가 됨으로써 개척의 역사에 투쟁의 역사가 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족 원로 사학자 C씨는 이렇게 말한다. “개척과 투쟁으로 삶의 근거지를 다지고 지켜 왔다는 점에서 조선족은 중국의 30여개 과계민족(跨界民族·주변 국가로부터 국경을 넘어 들어온 소수민족이라는 뜻) 중에서도 아주 유별난 사례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끝)

[그림 1] 간도의 지역적 구분, 1899



간도 (間島) = 오늘날의 동북삼성 (東北三省) = 만주 (Manchuria)
 = 랴오닝성 (遼寧省 요녕성) + 지린성 (吉林省 김림성) + 헤이룽장성 (黑龍江省 흑룡강성)

[그림 2] 간도 개척과 민족의 이주, 1890-1930년대



2) 간도의 독립군 활동과 자유시 참변

[그림 3] 간도의 독립군 활동, 1920년



“청산리 전투 승리에 빛나던 항일 독립군은 왜 갑자기 와해되었을까?”

조선일보 기사 (2016년 8월 18일, 이상훈 기자)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60821206&nidx=21207>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완전히 강탈당한 후 독립운동의 주 무대는 점차 해외로 옮겨졌다. 특히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이 많이 이주해 있던 만주, 러시아 등 국외에서는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좌진, 홍범도, 이청전, 이동휘, 이용(이준 열사의 외아들) 등 수많은 이들이 적극적인 무장 독립투쟁에 나섰다.

1919년 3·1 운동 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大韓國民議會 즉 노령임시정부)라는 임시정부 성격의 단체가 구성되었다(1919년 8월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통합). 대한국민의회는 3·1 운동 전후로 일본과 혈전(血戰)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같은 해 중국의 북간도에서 대한국민회(북간도국민회)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연길(延吉), 화룡(和龍), 왕청

(汪淸), 혼춘 등지에 거주하던 한국인(韓國人)의 자치단체로 북간도 4개 현에 거주하던 40만 한국인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은 일본은 대대적인 독립군 토벌에 나선다. 이때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말살하기 위해 1920년 10월부터 3~4개월간 간도의 동포들을 수만 명을 학살하는 간도참변(경신참변)을 일으킨다. 일본군에 쫓긴 독립군 단체들은 새로운 활동 기지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독립군은 중·소 국경지대인 밀산을 거쳐 러시아 자유시(스보보드니)로 이동했다. 독립군이 자유시로 집결한 것은 안전지대를 찾아 분산돼 있던 독립군 부대들의 힘을 합쳐 대일항전을 펼치려는 목적에서였다. 1921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유시에는 만주와 간도,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한인 독립군 3,000여 명이 집결했다. 하지만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한곳에 모이게 되자, 군권(軍權)을 놓고 갈등과 대립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림 4] 자유시 참변과 무장독립투쟁의 와해



소련 적군(赤軍·볼셰비키)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의 오하목(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이항군(상해파 고려공산당·이동휘 파)을 이끌고 있던 박일리아 간 군권 장악을 위한 암투가 일어난 것이다. 당시 러시아는 1917년 10월 혁명에 성공한 적군(볼셰비키)과 이에 반대하는 백군(황제파) 간에 전투가 치열했다. 러시아에 있던 많은 한인(韓人) 무장단체는

러시아의 지원을 얻기 위해 적군 편에 가담했다. 일본은 백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에 출병했고(시베리아 출병), 이 기회에 한인무장 독립 세력을 소탕하고자 했다.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 간 갈등이 번지면서 소수의 이르쿠츠크파 측은 1921년 6월 28일 소련 적군과 힘을 합쳐 다수인 사할린 의용대(자유시에 집결 후 개편된 독립군 이름)를 공격했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은 순수한 독립을 원하던 민족주의 계열의 상해파 고려공산당과는 달리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채 소비에트식 공산혁명을 꿈꾸는 이들이 조직한 당이다. 이때 소련 적군의 공격을 받아 600여 명의 독립군이 사망 및 실종됐으며 생존자 전원인 90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또 다른 기록에는 960여 명이 전사하고 1800여 명이 실종 및 포로).

이것이 이른바 '자유시 참변'이다. 소련 적군의 배반으로 독립군 세력이 거의 와해되는 타격을 입게 된 사건으로, 공산 혁명 사상으로 무장한 이르쿠츠크파 한인 공산주의 독립군들이 소련 정부 및 적군과 내통하여 조국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해 온 독립군을 학살한 참변이기도 하다.

근래 여러 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이미 소련은 1921년경 일본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한인 독립단체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였다. 대다수 독립군의 믿음과 달리 소련 적군의 배신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자유시 참변으로 무장독립투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으며,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과 공산주의 계열 사이에 반목이 극심해지면서 민족 분열의 계기가 되었다.

1921년 12월 일본 시베리아 출정군은 이만에서 러시아 백군과 연합해 이용이 지휘하는 대한 의용군을 공격했다(이만 전투). 포위된 3중대 1소대는 전멸했고, 중대장 한운용도 전사했다. 백군도 6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이 당시 많은 항일 무장단체가 러시아 백군 및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다. 당시 백군이 일본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인 무장독립단체들은 자동으로 적군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유시 참변을 겪은 독립군들은 1922년 9월 연길에서 의병장 출신인 김규식(金圭植)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고려혁명군을 조직했다. 이때 이용이 고려혁명군 총지부 북부사령관에 임명되고, 김경천 장군은 동부사령관이 된다.

하지만 1922년에 들어서자 소련 정부는 갑자기 노령 내의 모든 독립군에 대해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제가 시베리아 철병의 조건으로 노령 내 모든 한인 항일단체와 독립군 부대의 해산과 무장해제를 계속 요구하자 소련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독립군은 조국 독립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여겨 소련 적군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

당시 한인 무장세력 대부분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 무장해제로 대일 무력투쟁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강제 무장해제를 당한 많은 독립군이 간도나 만주 등지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무장독립운동은 만주군벌과 결탁한 일제의 집요한 토벌에 의해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점차 위축되었다.

1930년대 들어 만주국이 들어서고,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등 만주가 일제의 손에 완전히 장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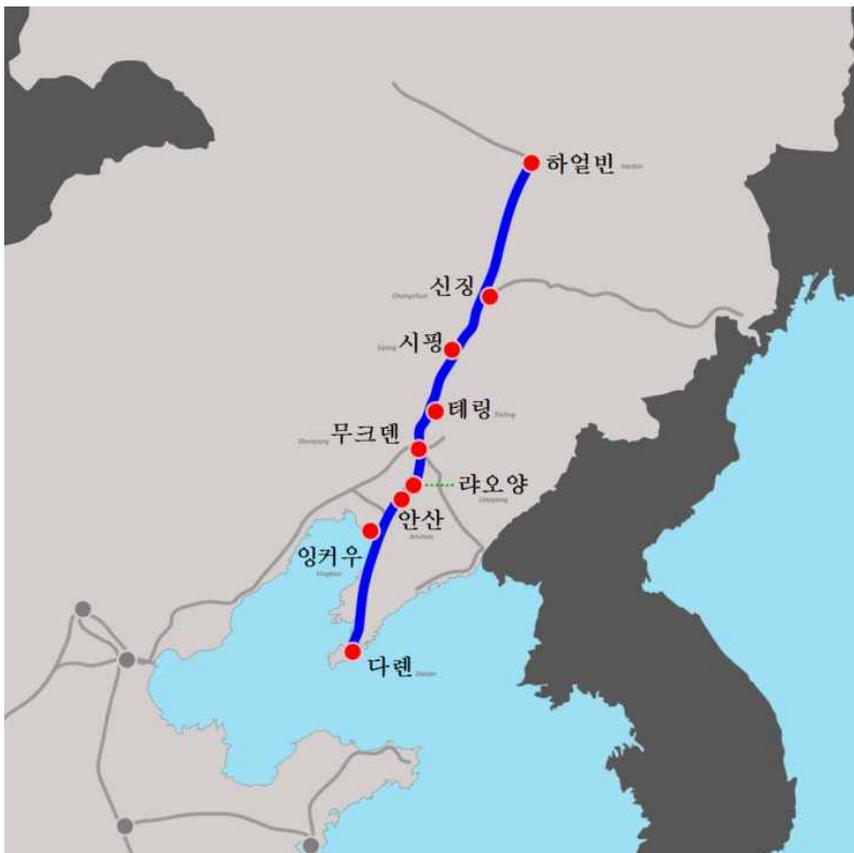
되면서부터 만주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무장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일부 독립군들은 의용대를 조직해 중공군이나 중국 국민당 군대와 손잡고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중국 공산군과 연계된 소규모 조선인 유격부대도 존재했는데 1940년대 들어서면서 이들의 활동도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 이들 부대장 가운데 한명이 1941년 20명을 데리고 소련으로 피신, 소련의 꼭두각시가 되어 한반도 북쪽 지역을 통째로 넘겨받은 김일성이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전황이 급격하게 돌아가자, 임시정부는 1940년 중경(重慶)에서 광복군을 창설했지만, 재정부족과 중국정부의 견제 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조국 독립보다는 공산화라는 딴 마음을 품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의 분열책동으로 통일된 항일(抗日)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했다.

분열로 인해 조국독립의 충정에 불타던 수백만 명의 해외 동포들을 항일투쟁 전선에 전혀 활용하지 못한 것은 민족의 크나큰 손실로 이어졌다. 2차 대전 후 우리는 아무런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파한 광복군은 만고의 노력을 기울여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준비 했지만, 일본의 이른 항복으로 아쉽게 뜻을 달성하지 못했다. (조선일보 기사 끝)

3) 만주(Manchuria)와 일본

[그림 5] 만주철도 (Manchuria Train Express: M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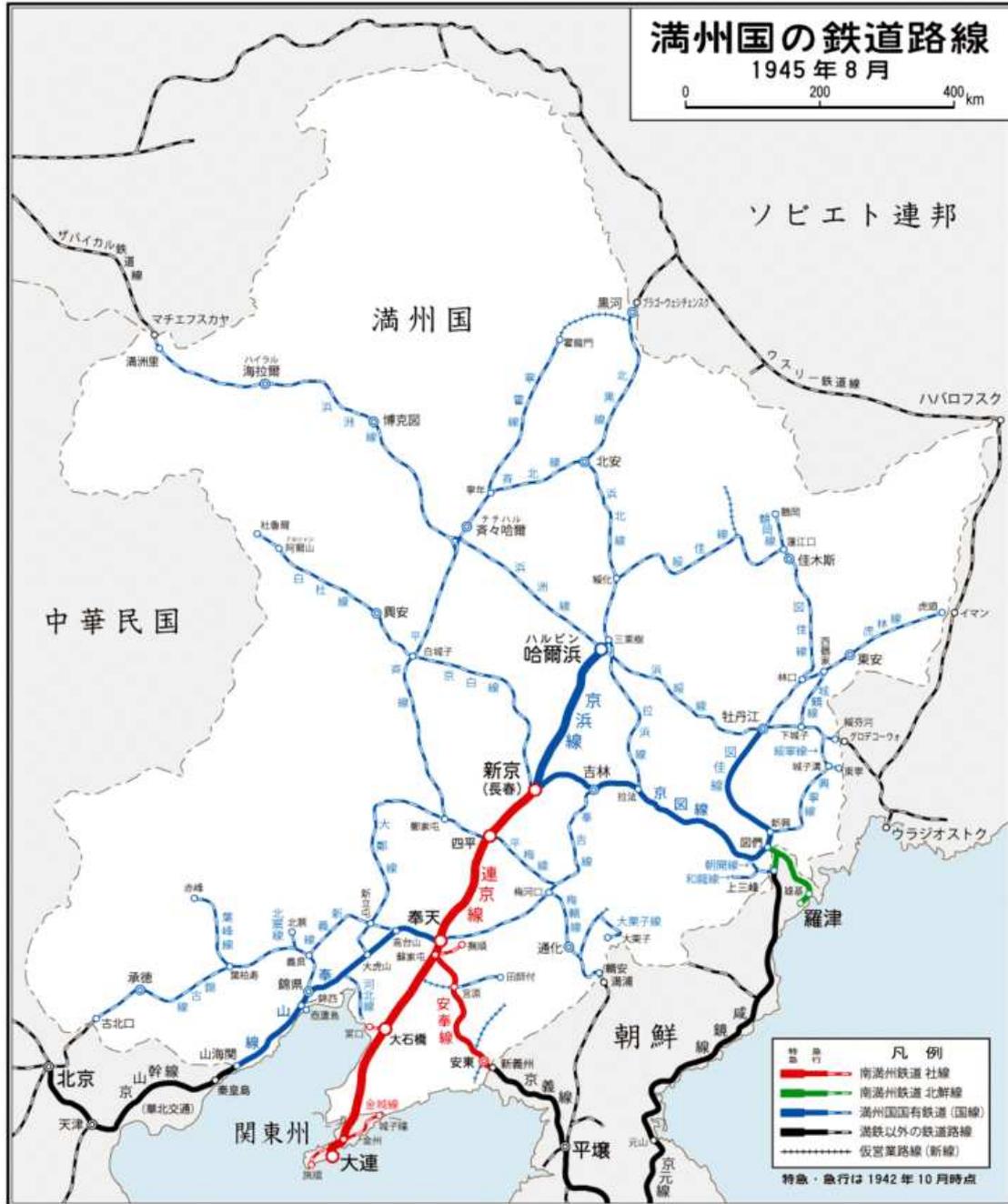


[그림 6] 만주국 (1934-1945)



Manchukuo (1933-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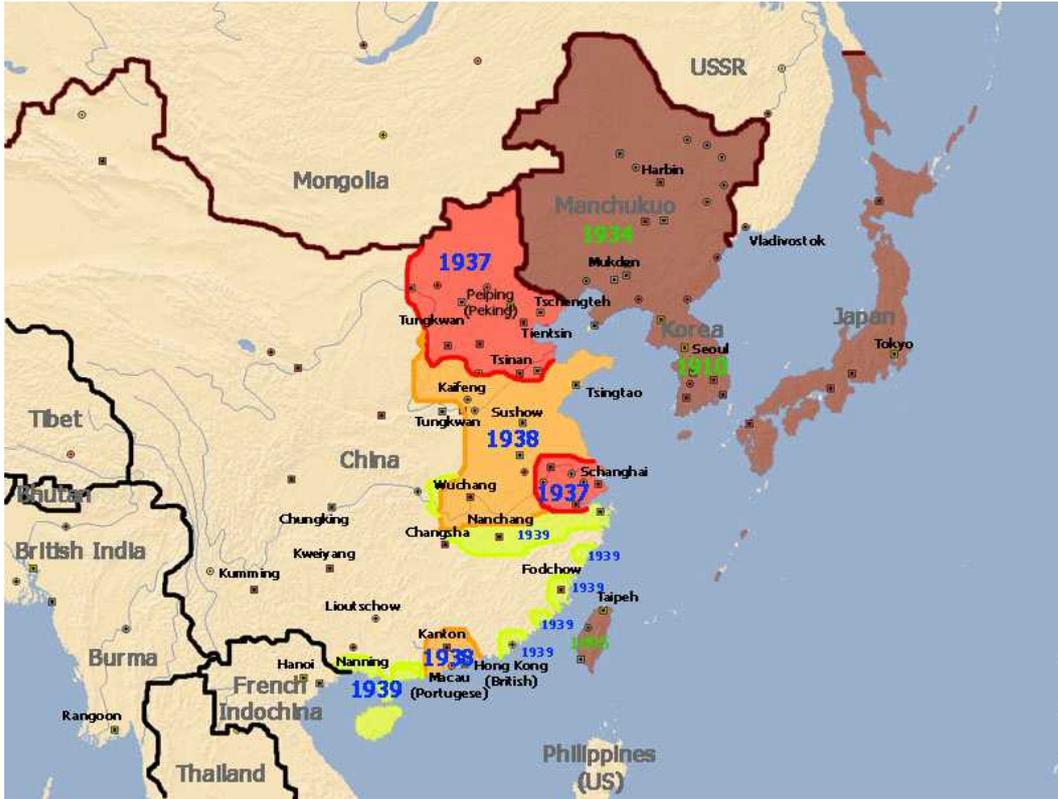
[그림 7] 남만주철도회사가 운영했던 만주국 철도노선.



붉은선이 남만주철도회사 사선(社線).
 녹색선이 남만주철도회사 북선선(北鮮線).
 청색선은 만주국 국유노선 (國線).
 흑색선은 만철이외의 타국, 타 회사노선.

[출처] 남만주 철도회사의 창립|작성자 도위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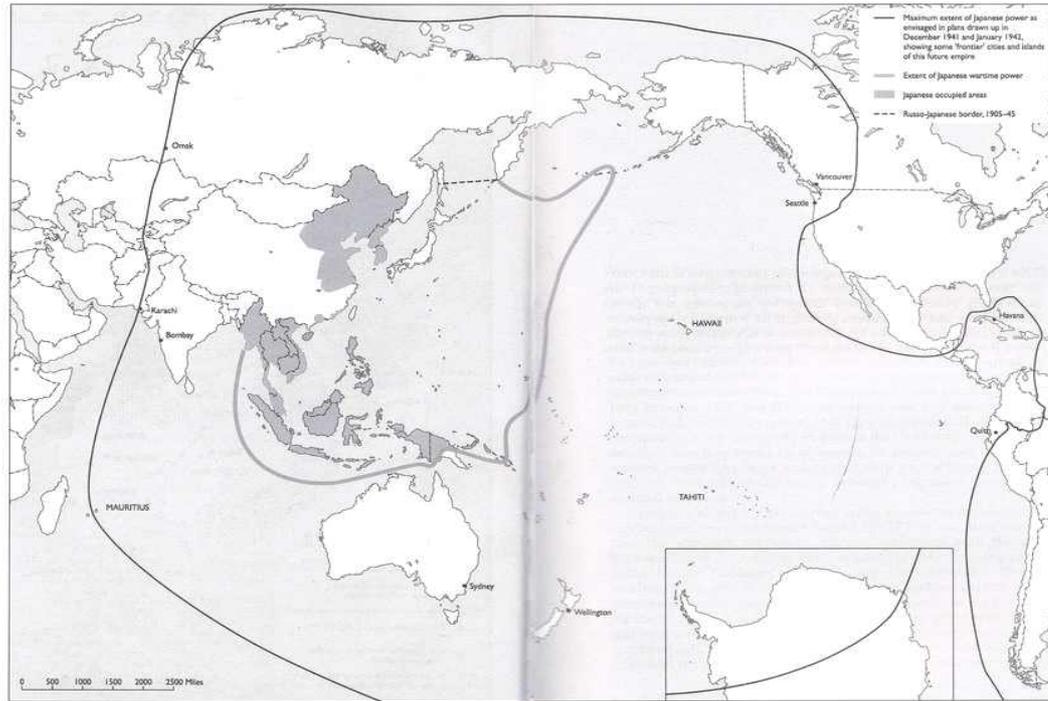
[그림 8] 일본의 만주 및 중국 침략



[그림 9] '대동아공영권' 최대 판도, 1941년 말 1942년 초



[그림 10] '대동아공영권' 최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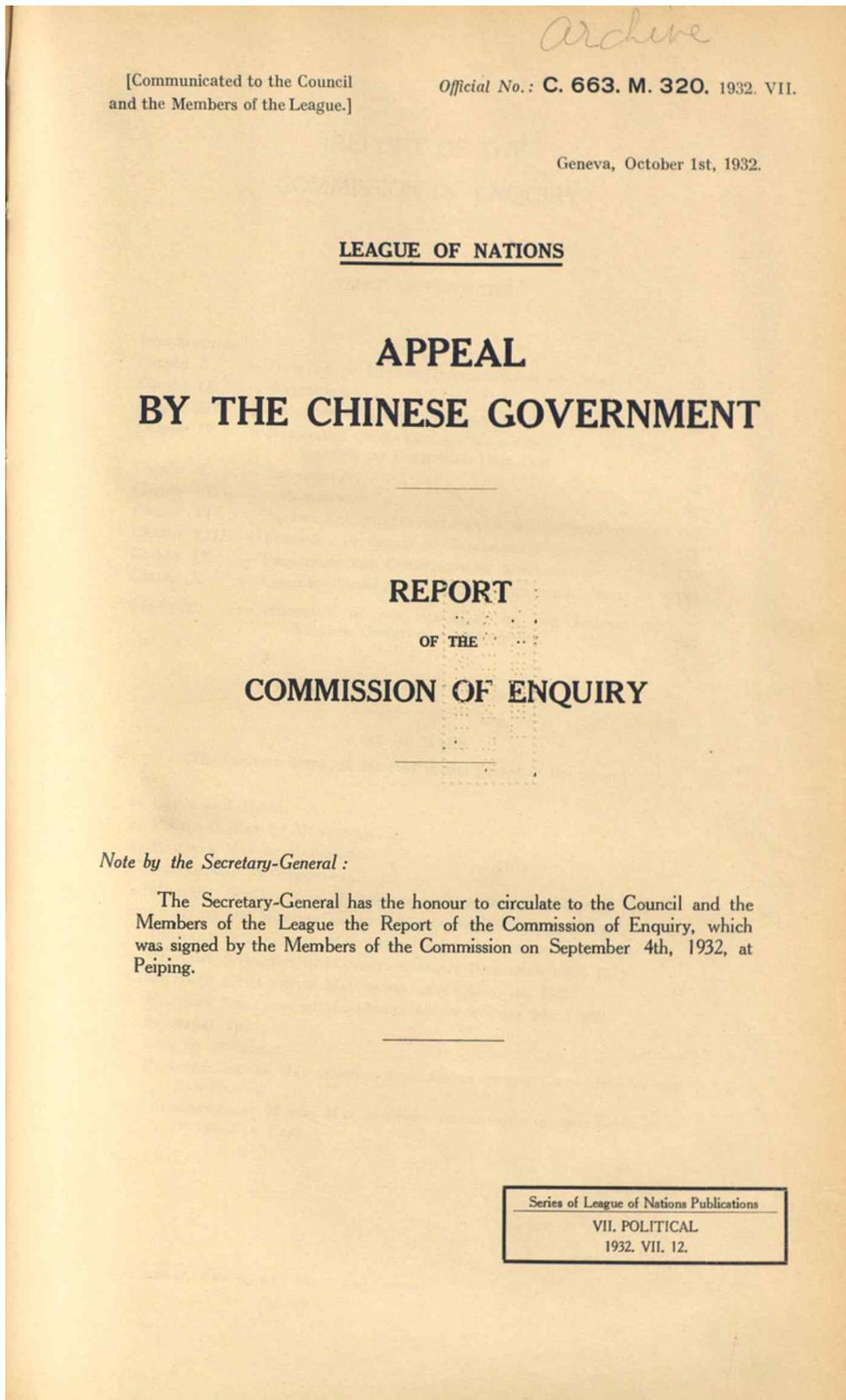
Japanese War Aims

만주사변 (Manchurian Incident, 滿洲事變),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

<http://kjc-sv013.kjc.uni-heidelberg.de/gpos/the-manchurian-incident-and-the-league-of-nations>

1931년 9월 18일 류타오후사건(柳條湖事件)으로 시작된 일본의 만주침략전쟁. 만주군벌 장작림(張作霖) 폭살사건 이후 그 아들 장학량(張學良)이 국민당과 손을 잡고 일본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소련이 안정된 경제발전을 이루어가자 이에 자극받은 일본군부와 우익세력 가운데 만주를 식민지화하여 주요자원과 군수물자의 공급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다.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板垣征四郎)를 중심으로 만주침략 계획을 모의한 이들은 봉천(奉天) 외곽의 류타오후에서 자기네 관할이던 만주철도를 스스로 파괴하고, 이를 중국 축소행이라고 트집 잡아 철도보호를 구실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관동군은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만주전역을 점령하고 32년 3월 1일 괴뢰 만주국(滿洲國)을 세워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다. 이에 중국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일본의 침략행위를 호소, 국제연맹이 조사단을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권고했으나(Lytton Report 1932), 일본은 이를 거부, 33년 3월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이후 일본은 본격적인 파시즘 체제로 전환했으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차례로 일으켰다.

[그림 11] 국제연맹 조사단의 보고서 표지 (일명 Lytton Report, 1932)



[그림 12] Lytton Report 목차

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TABLE OF CONTENTS

| | Page |
|---|------|
| INTRODUCTION | 5 |
| <i>Chapter I.</i> — OUTLINE OF RECENT DEVELOPMENTS IN CHINA | 13 |
| <i>Chapter II.</i> — MANCHURIA | 24 |
| <i>Chapter III.</i> — MANCHURIAN ISSUES BETWEEN JAPAN AND CHINA | 37 |
| <i>Chapter IV.</i> — NARRATIVE OF EVENTS IN MANCHURIA ON AND SUBSEQUENT TO SEPTEMBER 18th, 1931 | 66 |
| <i>Chapter V.</i> — SHANGHAI | 84 |
| <i>Chapter VI.</i> — “ MANCHUKUO ” | 88 |
| <i>Chapter VII.</i> — JAPAN'S ECONOMIC INTERESTS AND THE CHINESE BOYCOTT | 112 |
| <i>Chapter VIII.</i> — ECONOMIC INTERESTS IN MANCHURIA | 121 |
| <i>Chapter IX.</i> — PRINCIPLES AND CONDITIONS OF SETTLEMENT | 126 |
| <i>Chapter X.</i> — CONSIDERATIONS AND SUGGESTIONS TO THE COUNCIL | 132 |
| <i>Appendix.</i> — ITINERARY IN THE FAR EAST OF THE LEAGUE OF NATIONS COMMISSION OF ENQUIRY | 140 |

LIST OF MA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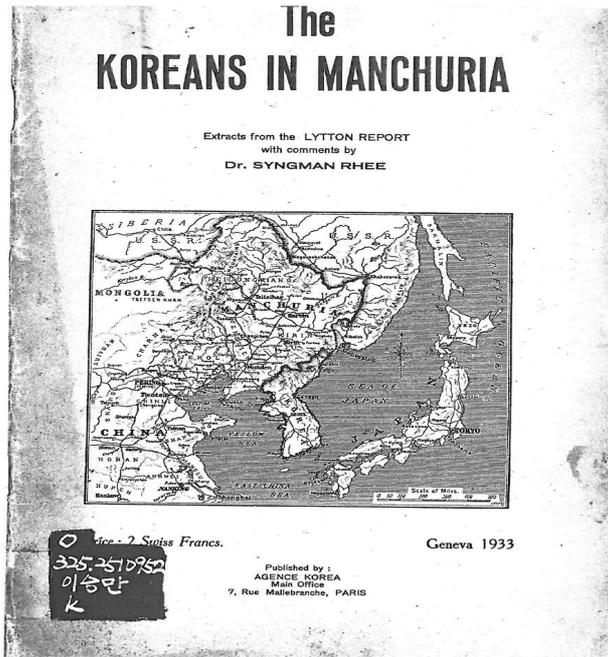
(The fourteen Maps are inserted in the pocket of the cover.)

1. CHINA AND JAPAN.
2. POLITICAL MAP OF MANCHURIA.
3. RAILWAY MAP OF MANCHURIA.
4. RELIEF MAP OF MANCHURIA.
5. MILITARY SITUATION IN MANCHURIA BEFORE SEPTEMBER 18th, 1931.
6. CHART OF THE MUKDEN INCIDENT (September 18th-19th, 1931).
7. MILITARY SITUATION IN MANCHURIA ABOUT SEPTEMBER 30th, 1931.
8. MILITARY SITUATION IN MANCHURIA ABOUT DECEMBER 10th, 1931.
9. MILITARY SITUATION IN MANCHURIA ABOUT MAY 1st, 1932.
10. MILITARY SITUATION IN MANCHURIA ABOUT AUGUST 20th, 1932.
11. SHANGHAI AREA.
12. CITY OF SHANGHAI.
13. PRINCIPAL ROUTE MAP SHOWING ITINERARIES OF THE COMMISSION IN THE FAR EAST.
14. SUPPLEMENTARY ROUTE MAP SHOWING ITINERARIES OF THE COMMISSION IN THE FAR 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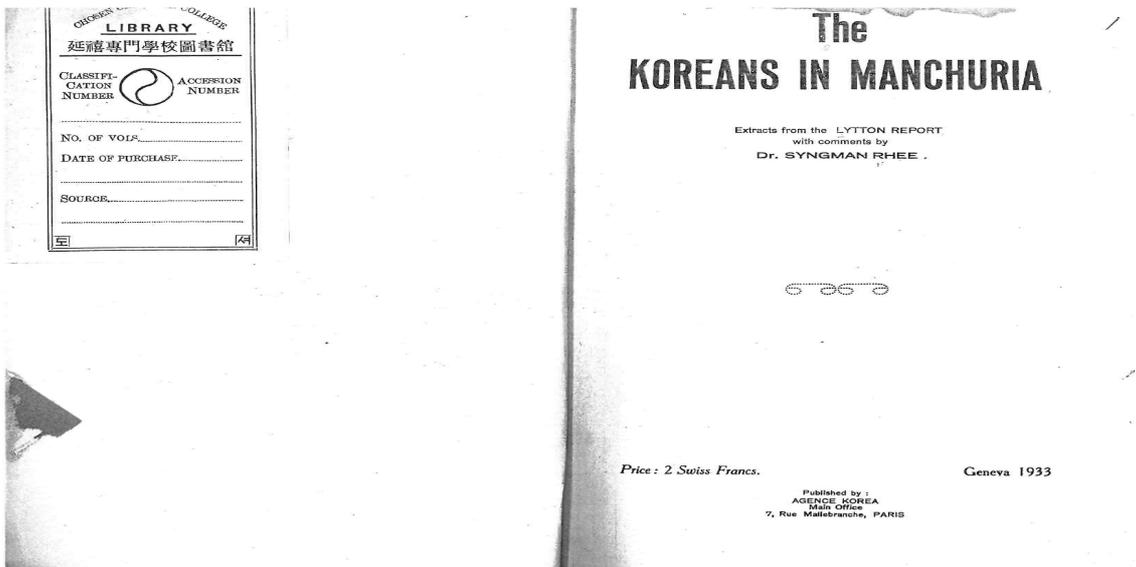
이승만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고 자신의 견해를 붙여 1933년 초 “*The Koreans in Manchuria*”(『만주의 한인』)라는 다음과 같은 책자를 출판해 제네바의 국제연맹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에게 배포한다.

[그림 13] Syngman Rhee, 1933, *Koreans in Manchuria*, Paris: Agence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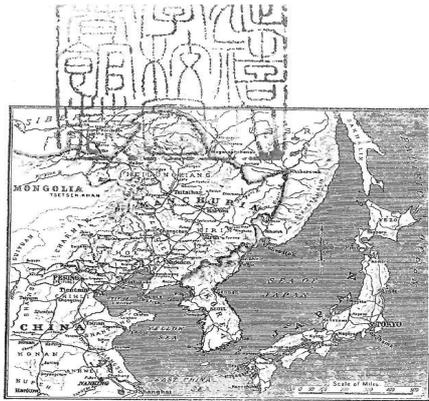
표지



속표지



Introduction



MAP of KOREA, MANCHURIA and JAPAN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booklet is to call the attention of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s delegated to deal with the Sino-Japanese conflict submitted for decision to the League of Nations, the Press and all persons or organizations which stand for justice to the oppressed, to the emphasis laid by the Lytton Report on the Korean question as a weighty factor in the just solution of Far Eastern problems.

Now that the League of Nations has still further enhanced its status as a mo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disputes by the decision it has just taken on the Sino-Japanese conflict, a decision based on justice and on the facts as reported by the Lytton Commission, this Korean phase of the Manchurian problem should not fail to receive from the League the consideration which is its due.

For the sake of brevity, the quotations made from the Lytton Report (referred to as L. R.) and from the Supplementary Documents to the Lytton Report (referred to as Suppl. Doc.) are accompanied by as few comments as possible. In the quotations themselves the original text has been reproduced verbatim and the page number of the Report added to facilitate reference.

Contents

Contents.

| | |
|--|----|
| Introduction | 3 |
| Purpose | 5 |
| Causes of Turmoil | 5 |
| Korean and Manchurian Problems Inseparable | 6 |
| Korean Population of Manchuria | 7 |
| Early Settlers | 7 |
| Recent Exodus | 7 |
| Causes of Migration | 8 |
| Rice Cultivation | 10 |
| Korean Hatred of Japan | 11 |
| Chinese Attitude towards Koreans | 12 |
| Beginning of Conflict | 14 |
| China's Attempts to Satisfy Japan | 14 |
| Suppression of Korean Societies | 15 |
| Chinese Encouraged Naturalization of Koreans | 15 |
| Treaty Rights | 16 |
| Dual Citizenship | 17 |
| Wanpaoshan Affair | 19 |
| Sino-Korean Friendship | 20 |
| Manchuria Indispensable to Japan | 22 |
| Surplus Population | 22 |
| National Defence | 22 |
| Japanese Protection | 23 |
| Koreans in Russia | 23 |
| Korean Nationalism | 24 |
| Appeal to Humanity | 25 |
| Sufferings | 25 |
| Oppression | 26 |
| Espionage | 27 |
| APPENDIX | |
| Japanese Atrocities | 29 |
| Hunchun Incident | 30 |
| Tokyo Massacres | 33 |

The Koreans in Manchuria

Purpose.

We, the fully accredited representatives of 23,000,000 Koreans residing in Korea, Manchuria, Siberia, Hawaii, America, Mexico and elsewhere, have the honor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States, Members of the League of Nations, to the fact that more than a million Koreans now residing in the Three Eastern Provinces of China, commonly known as Manchuria, demand a just and equitable settlement of the questions of their legal "status", their "dual citizenship" and their "rights" to purchase or lease land and live in Manchuria without Japanese interference.

While we await a more appropriate occasion to present Korea's just claims for the restoration of her lost independence, we confine ourselves in this discussion to questions relating to the Koreans in Manchuria who are undoubtedly inextricably involved in the Manchurian dispute and whose claim to proper consideration by the League in conjunction with the Sino-Japanese issue cannot be ignored.

In voicing the sentiments of these "suffering" and "victimized" Koreans, we request that the League, after due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in the light of the Lytton Report, should declare that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and those living outside Korea in particular have an undeniable right to be naturalized in whatever State they choose, subject only to the nationality laws of such State, and that their naturalization shall be respected by Japan, as it is by all other nations.

Causes of Turmoil.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Far Eastern crisis, which is keeping untold millions of Oriental peoples in a state of constant terror and panic while also threatening the peace of the entire world, is what is known as Japan's "positive policy of the Conquest of Asia". The situation of turmoil in the Far East, due to the territorial ambitions of a warlike people, intoxicated with the glory of military conquests, can best be illustrated by the story of a drunken man, who occupied, at pistol point, the home of his next-door neighbor, beat the neighbor's child until the frightened child ran into a third house for refuge, followed him to that house and occupied the premises on the ground that the child was there

2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booklet is to call the attention of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s delegated to deal with the Sino-Japanese conflict submitted for decision to the League of Nations, the Press and all persons or organizations which stand for justice to the oppressed, to the emphasis laid by the Lytton Report on the Korean question as a weighty factor in the just solution of Far Eastern problems.

Now that the League of Nations has still further enhanced its status as a mo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disputes by the decision it has just taken on the Sino-Japanese conflict, a decision based on justice and on the facts as reported by the Lytton Commission, this Korean phase of the Manchurian problem should not fail to receive from the League the consideration which is its due.

For the sake of brevity, the quotations made from the Lytton Report (referred to as L. R.) and from the Supplementary Documents to the Lytton Report (referred to as Suppl. Doc.) are accompanied by as few comments as possible. In the quotations themselves the original text has been reproduced verbatim and the page number of the Report added to facilitate reference.

✓

Contents.

| | |
|--|----|
| Introduction | 3 |
| Purpose | 5 |
| Causes of Turmoil | 5 |
| Korean and Manchurian Problems Inseparable | 6 |
| Korean Population of Manchuria | 7 |
| Early Settlers | 7 |
| Recent Exodus | 7 |
| Causes of Migration | 8 |
| Rice Cultivation | 10 |
| Korean Hatred of Japan | 11 |
| Chinese Attitude towards Koreans | 12 |
| Beginning of Conflict | 14 |
| China's Attempts to Satisfy Japan | 14 |
| Suppression of Korean Societies | 15 |
| Chinese Encouraged Naturalization of Koreans | 15 |
| Treaty Rights | 16 |
| Dual Citizenship | 17 |
| Wanpaoshan Affair | 19 |
| Sino-Korean Friendship | 20 |
| Manchuria Indispensable to Japan | 22 |
| Surplus Population | 22 |
| National Defence | 22 |
| Japanese Protection | 22 |
| Koreans in Russia | 23 |
| Korean Nationalism | 24 |
| Appeal to Humanity | 25 |
| Sufferings | 25 |
| Oppression | 26 |
| Espionage | 27 |
| APPENDIX | |
| Japanese Atrocities | 29 |
| Hunchun Incident | 30 |
| Tokyo Massacres | 33 |